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남도 산청군
- 화계지역아동센터



2017. 8

이번 봉사의 팀장으로서 가기 전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나를 포함한 친구들이 아이들과 잘 놀고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이 너무 밝고 귀여웠다. 나로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이 많이 없었다는 점이 다소 안타까웠다. 꼭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면 좋은 점과 학습 의지를 고취시켜주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보니, 어색하기도 했던 아이들과 어느새 금방 친해져 있었다. 팀원들 모두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이혼하시는 등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 처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팀원들이 완전한 안정감이나 부모님이 계실 때의 충족감을 안겨줄 수는 없었겠지만, 활동하는 동안 만이라도 최대한 따뜻함을 전하려고 하였다. 한편으론,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스스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감성이 섬세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이화봉사단인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아도, 가끔씩이라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평소와는 다른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아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를 바랐다. 우리 팀원들은 이번 활동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 역시 이화봉사단의 방문을 즐겁게 받아들여 주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겨울방학에도 산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싶다.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유*린

전 어릴때부터 대도시에만 살았고 소도시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이런 저런 봉사과 입시상담을 해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계획을 짰는데 이는 소도시 아이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생하게 소도시의 교육환경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것은 좋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정을 잘 주었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많은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이를 보며 단발적인 봉사보다는 짧지만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김*은

이번 봉사활동은 아이들을 처음 만난 후부터 아이들이 저희를 배웅해줄 때까지 아이들에게서 눈을 한 순간도 떼고 싶지 않았고, 뭘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랑을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의 마음이 더 힐링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 중 몇몇은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밝고 바르게 성장한 것이 대견하게 느껴져 더 행복했습니다.

첫 날부터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밝게 웃어준 아이들의 미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티 없이 해맑은 그 표정을 보면서 참 소중하고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날 마음이 여린 아이들의 우는 모습에 마음이 찡하기도 했고 캠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며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는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고 더 오랜 시간 보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현우가 학교 방과 후 활동에서 만들어서 저에게 준 글귀, 은채가 저를 그려준 그림,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작성해 준 롤링페이퍼는 작은 것이지만 저를 위해 선물해준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귀해 그냥 받기가 아까울 정도로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즐거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찼습니다. 청소년 봉사가 처음인 저희가 많이 부족했고, 가르쳐준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표현을 해준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틈틈이 연락도 자주하고, 겨울 방학 때 꼭 다시 와서 아이들과 행복한 재회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신청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직접 내려가 보고 나서 이 봉사는 단순한 교육봉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교육 수준이 예상보다 약간 낮았던 것을 제외하면 너무나도 착하고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었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정말로 문제였던 것은 아이들이 품고 있는 상처, 그로 인한 자신감 결핍과 불안증이었다. 4박 5일 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상처를 모두 치료해주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고, 오히려 정이 들고 떠남으로써 더더욱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더 긴 시간, 혹은 프로그램의 포인트나 내용을 바꿈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가 되었으면 한다.

조원들끼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직접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체적이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센터의 아이들이 모두 착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단순히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참여한 이화봉사단 활동이었지만,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난 후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 먼저 우리가 간 화계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곳은 교육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이들 수 자체도 많이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았다. 또한 센터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본인들에 대한 자신감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보였다. 그래서 서울의 대학생들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잠깐 제공해주는 우리 이화봉사단활동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 일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잠깐 언니 누나들이 와서 놀다가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들을 서울로 올라오게 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아닌 우리 이화봉사단원들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막막한 것이 많았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즐거운 게임과 많은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즐거워 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정작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닌 사랑과 관심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혼자 느끼는 즐거움 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원했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자신이 뽐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결국 마지막에 나는 내가 고민했어야 했던 사항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봉사란 누군가에게 큰 힘이되고 도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작은 추억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마워하며 울고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도움을 베풀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작은것이라도 베풀기를 원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아동센터 아이들을 항상 웃게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 정기적으로 하던 학습기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화봉사단에 지원했다. 사실 처음에 버스도 잘 가지 않고 산 깊은 곳에 있는 아동센터에 큰 변화를 바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처음 만난 아이들은 우리에게 낯도 가리지 않고 편하게 대해 주었고 첫 날부터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매 주 악기를 하나씩 연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기타와 베이스, 드럼과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주변에 음악학원이 많이 없는 데도 스스로 취미생활을 찾아서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고 멋져 보였다. 오전에 오는 아이들을 한 명 씩 문제집을 같이 풀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지 않고 잘 따라 주어 고마웠다. 어린 아이들이라 가만히 앉아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투정을 부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문제집 진도를 더 나가자는 아이도 있었고 궁금한 것을 더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매우 뿌듯했다. 물론 아이들 중 몇 명은 쑥스러워 하고 우리들에게 빨리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많이 대화하려 노력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여 마지막 날이 될 즈음에는 서로 마음 속 이야기도 풀어놓고 앞으로의 진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밤에는 아이들이 집으로 간 후 우리들끼리 아이들에게 롤링페이퍼도 쓰고 캐리어쳐도 그리며 이야기 할 시간이 있었다. 동기들과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며 많이 공감도 하고 친해질 수 있었으며 오히려 나 자신이 봉사활동에서 힐링을 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떠날 때 아이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와 많은 교감을 했다는 생각이 너무 슬펐다. 하지만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앞으로의 내 생활에 원동력이 될 것 같다.